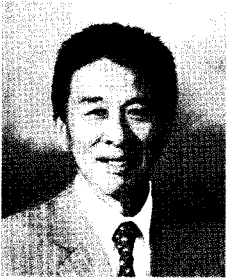


본 협회 이진성 이사님 농장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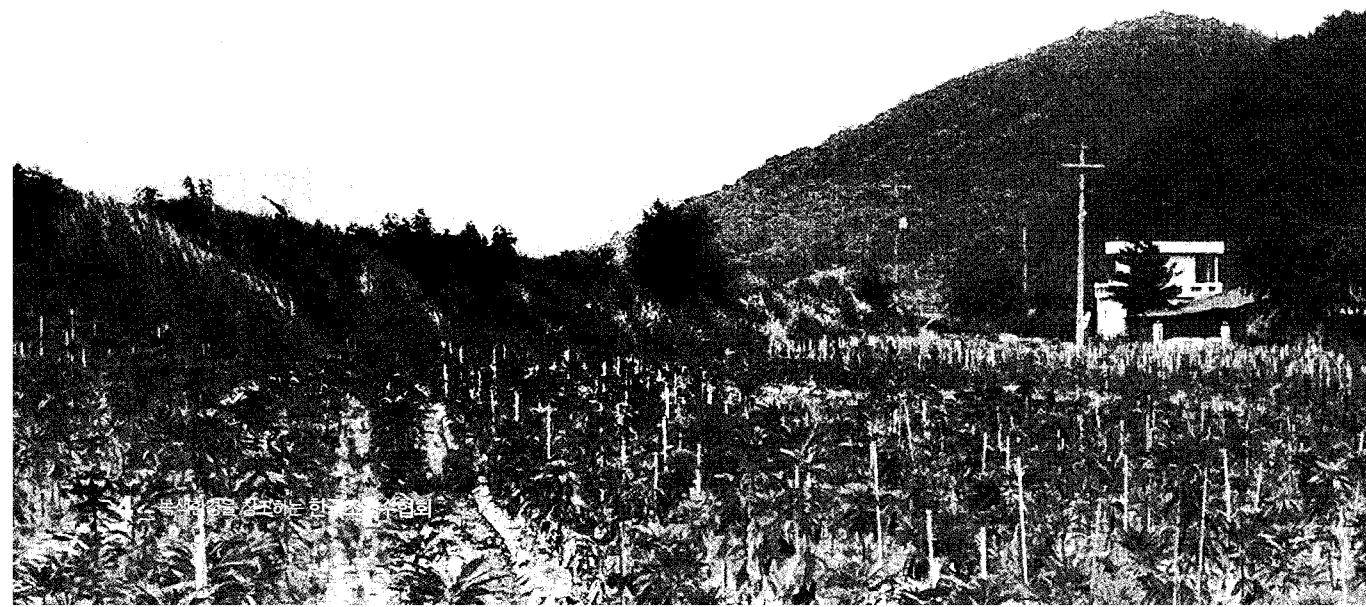
김자영 | 회장
(사)한국조경수협회

그분의 농장

7월초 어느날 그를 만나기 위해 새벽 6시 30분 일행과 함께 서울에서 마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날씨는 약간 더운듯 했으나, 맑고 푸르름이 오늘 만나볼 그의 작품들을 생각하며 설레이는 나를 약간은 흥분하게 만들었다. 약 5시간의 자동차 여행 후 도착한 곳은 마산의 백승대 부회장님의 전시판매장이었다. 잘 정돈된 그곳에서 정성스레 가꾸어진 나무들... 내가 취급하여 보지 못하여 몇번을 들어도 그 이름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 나무가 그 나무같아 혼란한 나에게

열심히 설명하여 주시는 남부조경 백부회장님에게 미안한 마음만 남았다. 그러나 이리이러한 나무들이 남부 수종들이구나... 하는 정도만 알게된 것은 그나마 소득이랄까?

수원에서 동승한 이상웅 부회장님, 박종철 지부장님, 광주에서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이한승 부회장님과 그의 후계자 되시는 아드님, 또 부산에서 마산까지 오셔서 나를 맞아주신 황천성 친목회장님을 모시고 또



나중에 합류하신 그분과 함께 백부회장님 안내로 인근의 꽤나 유명하다고 소문난 식당에서 점심과 환담을 나누면서도 그 곳에 가서 볼 그 무엇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더 고조되어 가는 것 같았다.



회원조경 농장에서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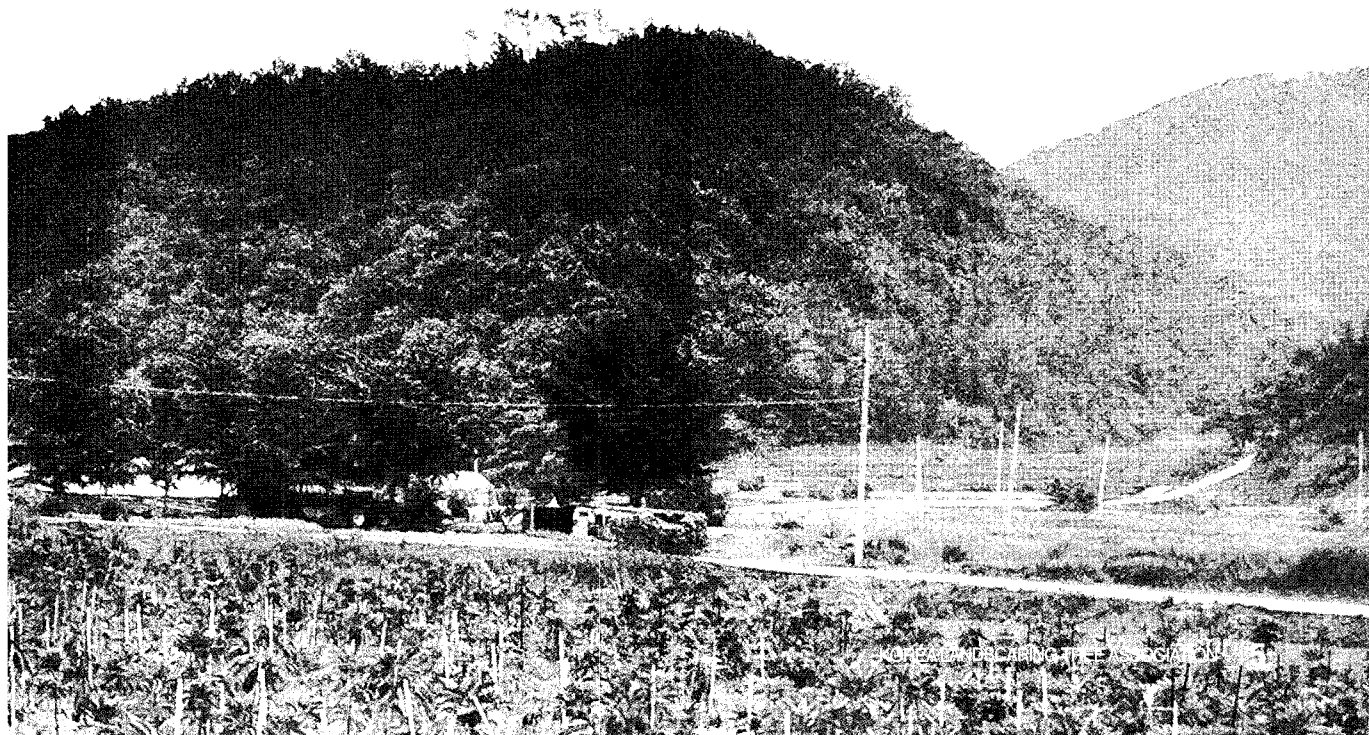
식사 후 처음으로 안내된 그분의 농장은 우리 일행으로 하여금 다소간의 긴장감이라도 풀어주시려는 듯 우리 서울 경기권 사람들에게도 꽤나 익숙한 그리고 잘 가꾸어진 가이즈까 향나무가 집단적으로 대량 재배되고 있는 비교적 평탄한 농장이었다. 이곳에서는 나무에 관한 대화중에 나도 몇마디 말을 거들 수

가 있었다. 왜냐하면 익숙한 나무였고 농장의 규모나 지형 등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긴장감은 다소 가라앉은 것 같았고 오늘의 나머지 여정도 그저 그러려니 그리고 쉽게 보아오던 그런 조경수 농장이겠지 하는 어찌면 다소 실망스런 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숨길 수가 없었다.

다시 인근 산지에 조성한 농장에서는 평소 보지 못하였던 시설에서 컨테이너에 앞으로 자체 수요에 맞추어서 묘목을 생산 재배하는 것을 보았고 또 여건이 별로 안 좋은 산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그 나름 대로의 방법을 전해들었다. 그러나 그 또한 특별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다시 백부회장님 사무실로 와서 나는 그분이 운전하는 4륜 구동차 조수석에 편승하였다. 산청으로 향하는 그의 차량과 그 차안에 실린 그의 소도구들과 오래된 서류가방을 보면서 생각은 다시 바뀌고 새로운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상기되었다. 잠시 가졌던 약간의 실망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궁금증은 꼬리를 물





가이즈까함나무 농장



가시나무 포트재배



었다. 인근 3곳의 농장은 규모는 큰 곳, 작은 곳 합쳐서 약 70헥타르라고 한다. 첫번의 곳은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산지가 그것도 경사가 상당한 절코 야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약산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 산을 조경수 농장으로 변화되는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최근에 매입하여 개발을 시작한 곳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안내되었다. 벌목이 끝나고 작업도로가 개설중이었으며 본래 그곳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는 사람의 손길에 의하여 언제라도 조형소나무로 출하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져 있었다. 또한 입구쪽의 평탄한 부분에는 벌써 출하를 기다리는 왕벚나무들이 그분과 대역사에 함께 하겠다는 듯 왕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날의 약간 늦은 오후 날씨는 우리의 발길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부지런히 산청 농장의 두번째 장소에 도착하니 면적의 차이는 있으나 여건은 보통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의 절벽에 가까운 산이었다. 그곳은 각종 조경수들로 이미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 함직한 나무들로 꽉차 있었다. 그들은 '이런 험한 땅에서 그 무서운 주인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우리는 어디로 시집을 가든 새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듯 했다. 약간 비를 맞는 가운데 33헥타르에 이르는 산청 최대의 농장에 안내되었다. 앞의 두 곳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임직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의 오래된 사륜구동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며 험한 작업도로를 이리저리 돌며 한도 끝도 없이 오르고 그러다가 또 내리고 가는데 문득 이런 곳에

서 길을 잃는다면 생존을 위해서는 119구조대 특히 산악 전문 구조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겠지? 하면서 혼자 속으로 웃음을 짓기도 하였다. 그 방대한 스케일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이런 일을 그 연세에 할 수 있을까? 그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언제까지나 이러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과연 사업성 내지 경제성면에서 타당한 것인가? 하는 지극히 나와 같은 법인이 생각할 수 있는바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사륜구동 께로퍼는 우리를 정상까지 데리고 왔다. 온 천하가 거의 다 내려다 보이는 듯한 곳이었다. 잠시 아무 생각없이 멍해지는 듯한 나에게 하늘에서 약간의 비를 뿌려서 나로 하여금 정신이 들게 하였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다니던 중에 그분은 철책과 그물로 드리워진 곳을 가





보트에 가지런히 정리된 묘목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정식간격의 왕벚나무

리키며 산에서 파종하여 재배하는 신양산삼밭을 가리켰다. 들짐승과 조류 등은 물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까지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었다. 그분의 철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한 재배지가 여러곳에 산재하여 그 면적과 재배하는 양을 물어보니 하도 방대하여 그분도 정확히는 모르고 그저 잘 관리하면 그분 일가가 밭대에 걸쳐서 생활의 기반이 될만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며 웃으며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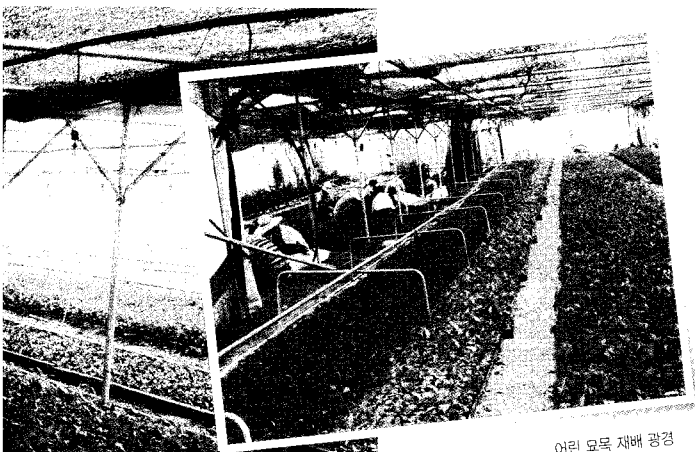
어느덧 빛 줄기는 피하기 힘들 정도로 굵어지기 시작하여 우리는 하산을 시작하였다. 입구까지 내려와서 우리는 얼마되지 않은 평지에 지어진 온실에서 자라고 있는 각종 묘목들과 그 관리시설들을 견학하고 굵은 날씨 때문에 작업 중 진흙구덩이에 빠진 트럭을

끌어내기 위하여 깔로퍼를 몰고 그 산 어디론가 사라진 그분과 전화 이별을 하고 돌아오는 차에 올라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 본다.

무모한 듯한 그의 도전에는 그 나름대로의 계산은 있는 듯하다. 저렴한 지가로 방대한 면적을 구입하여 불리한 여건을 바로 그 불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산양산삼을 비롯한 산지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수목재배에서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이 나온다고해서 누구나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추진력과 의욕, 자신감 등이 남다른 그와 같은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생각해 본다. 한편, 이러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한 진리 하나를 스스로 깨달으며 그분의 야망찬 꿈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그의 강한 정신력과 같이 건강이 뒷받침되기를 기원하며 하루의 일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

우리 조경수 생산자들이 애로를 느낄 때에 한번쯤은 와서 보면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평범한 생각은 그저 평범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

2009년 7월 2일 본 협회 이건설 이사님 농장을 다녀와서...



어린 묘목 재배 광경